

## 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 1985년 미문화원 점거투쟁과 현재의 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IRC) -

원시림 (소설가)

**현**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표할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특수자들이 모여 있는 지구촌에서 '세계적'이란 말이 궁극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언필칭 사용하는 '세계적'이란 결국 '미국적'임을 일컬을 수밖에 없다는 탁석산 선생의 말 또한 일리가 있다. 아무려나 아메리카 땅에서 5천여 년이 넘도록 살았던 인디언을 몰아내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부를 축적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1783)한 지 고작 2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강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 이달에 답사할 민주화 유적지로 '미문화원'을 정한 이후 나름대로 미국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필자는 여러번 놀랐다. 우선 대형서점의 서가에 꽂혀 있는 미국학 관련 서적의 협소함에 놀랐고, 미국이 독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면서 또 놀랐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무식(無識)인가, 맹목(盲目)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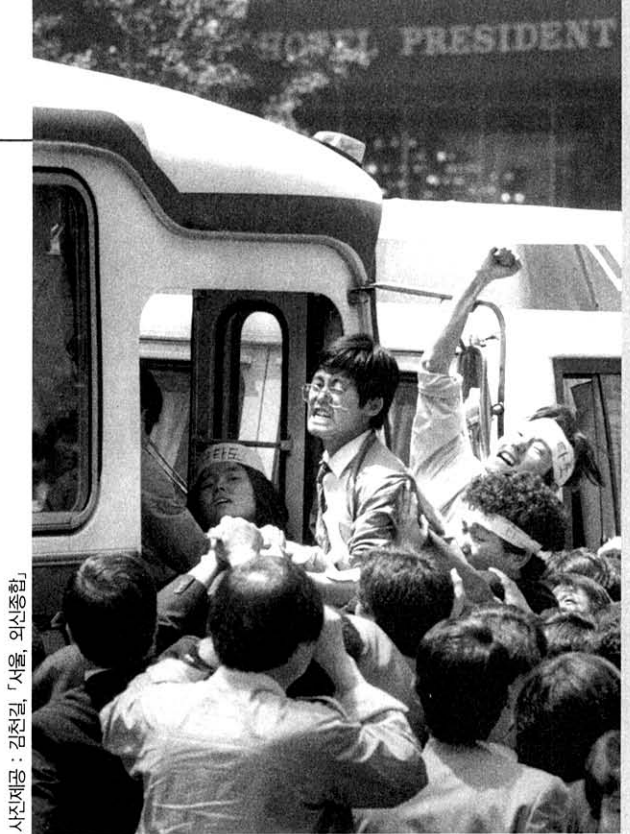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의 아메리카에 프랑스나 스페인도 상당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도 놀랍고, 1787년 '델라웨어'가 맨 처음 미연방

에 가입한 이래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가입해 50개 주가 되기까지 172년 동안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간 것도 놀랍다. 게다가 사들인 땅은 '알래스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전에도 '루이지아나'를 비롯해 상당한 영역의 땅덩어리를 '구입'하면서 현재의 영토를 이뤘다니…… 그들의 오랜 '공화적 민주주의' 역사를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미국의 역사란 '자본주의의 확대'와 궤를 함께 했다는 사실 역시 묵과할 수는 없을 듯하다.

미국에 대한 짧은 편력은 이쯤에서 접고, 1985년 5월에 있었던 '미문화원 점거투쟁'과 현재의 모습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문화원 점거투쟁의 동기는 광주민중항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민중항쟁이 진행중이던 1980년 5월 22일, 한미연합사령관 위컴이 "미국은 광주사태를 진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4개 대대의 한국군을 미국의 통제하에서 풀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당시 신군부의 쿠데타를 미국이 동조 혹은 지지했음의 증거가 된다. 이에 대해 미문화원 점거투쟁의 대표로 알려진 함운경씨(현 39, 당시 서울대 물리학과 4학년)



사진제공 : 김현길, 「서울, 외신종합」

는 “애초에 공수특전단의 설립과 운영이 미국의 작품이었고, 박준병이 사단장으로 있던 제20사단은 주한 미군의 지휘권 내에 있었으며, 5·18이후 백악관을 통한 논평등으로 전두환을 지원했던 것을 통해 보더라도 미국이 광주민중학살의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대해 ‘우방국’ 또는 ‘민주주의의 보루’로 여겼던 당시의 광주시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식의 표출로 일어난 최초의 사건은 미국무장관 브라운의 방한에 즈음해 일어난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1980.12.9)’이다.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광주지부장이던 정순철씨(당시 27세)가 농민회원인 김동혁, 박시영, 윤종형, 임종수씨 등과 함께 광주 미문화원 지붕에 구멍을 뚫고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이다. 이 땅에 비치기 시작한 반미투쟁의 신호탄인 셈이었다.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에서는 또다른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오후 2시 미문화원이 학생들에 의해 불탔고, 같은 시각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나라’는 내용의 성

명서가 시내 곳곳에 뿌려졌다.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화목적を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 관치는 미국 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 먼저 미국 문화의 상징인 부산 미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 반미투쟁의 횃불을 들어 부산시민의 자각을 호소한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이에 대해 좌경공용세력으로 몰아붙여 최인순, 이미옥, 김화식, 최충언, 박원식 등 5명을 3월 30일에 체포했고, 4월 1일에는 사건의 주모자인 문부식과 김은숙이 최기식 신부의 주선으로 자수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최고 사형(확정 단계에서 ‘무기’로 감형)에서 최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언도되었다(광주와 부산의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답사는 취재 일정상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한편 전두환은 1981년 2월 레이건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였고, 레이건 역시 1983년 11월에 한국을 답방하였다. 이는 물론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을 얻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985년



옛날 미문화원  
자리는 현재  
'서울특별시 을  
지로 별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2·12총선'을 통해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됨으로써 상황은 달라졌다. 대학가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각종 전시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학생들은 1985년 4월 17일 고려대에서 '전학련(전국 학생총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5월 23일 정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학생 73명이 서울 남대문로1가에 있는 미문화원으로 일시에 뛰어들어가 2층 도서관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책상과 의자 등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친 뒤,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광주학살 지원에 대한 미국의 공개 사과와 전두환 정권

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창문에는 "광주학살 지원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는 그들의 주장이 붙었다. 당시 검찰의 조사과정과 언론보도에서는 '삼민투 소속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당시의 '삼민투'가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가진 조직은 아니었다는 것이 함운경씨의 설명이다. 당시 점거투쟁 주체를 삼민투에 전가한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부풀린 것이라 한다.

"대학가에서 광주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5월에는 대대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미문화원을 점거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사람은 홍성영씨(당시 서울

대 토목공학과 4학년)였는데, 우선 미문화원이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것과 점거하기가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1984년말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이 있었을 당시 그날로 강제 해산당했던 점에 미루어, 미문화원 점거 역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5공 정권과 미국측의 판단은 쉽게 내려지지 못했다. 학생들은 창문에 “경찰이 투입될 경우 우리 모두는 투신음독 등 죽음을 불사하며 항의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붙였다. 미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거를 처음 당하는 일이었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선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1985년 당시의 미문화원 건물은 현재 ‘서울특별시 청 울지로 별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점거농성장으로 쓰였던 2층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종합자료관-정기간행물실’이 되었다. 1991년 서울시가 미합중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시의회’나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등으로 이용하다가 1995년에 ‘시청 자료실’로 꾸민 것. 이곳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기간행물과 영상자료, 전자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동행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서 만난 함운경씨의 설명에 따르면 건물의 골격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부 구조는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지금은 칸막이로 막아 ‘자료실’과 ‘사무실’이 나뉘어졌고 그 사이에 복도가 있지만, 당시에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ㄱ’자 형태로 모두 띄어 있었다는 것이다. 73명의 학생들은 건물 서편 계단으로 뛰어올라와 직원들을 내보내고 나서 서편과 중앙의 계단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미대사관측(정치참사관



함운경씨가 서울시 종합자료관으로 변한 옛날 미문화원 2층 도서관 자리에서 밖을 내보며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토마스 더롭’)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각지에서 몰려온 기자들과 필담으로 주장이나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당시 함운경씨는 건물 뒤편의 화장실 옆으로 난 창틀 난간에 올라서서 구호를 외치거나 요구사항을 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방법창으로 막혀 있어 창틀에 올라설 수 없게 되어 있다.

### 역사란 모두 붙어 있는 연결고리

농성장에서는 미국측의 ‘선 농성해제, 후 대화’ 입장과 학생측의 ‘공식문서화와 학살동조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 요구가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점거한 지 72시간이 지난 5월 26일 정오, 학생들은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큰 동기로는 다음 날 건너편 롯데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던 ‘남북적십자 대표 회담’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함운경씨는 “적십자회담에 영향을 주거나 북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점거농성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무튼 함운경씨를 비롯한 농성학생들은 “독재타도”를 외치며 끌려가 중부경찰서에서 ‘소매치기 담당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73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연

행된 데다, 마땅한 죄목을 붙이기도 어려웠을 터였다.

농성학생 연행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당시의 '미문화원 점거투쟁'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우선 미국을 무조건 우방으로 여겼던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와 민중학살을 통해 정권을 찬탈했으므로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사'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 등일 것이다. 함운경씨 역시 당시의 점거농성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연행된 학생들은 일명 '떡방'이라 불리는 0.44평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머니는 '구속자가 족협의회'를 구성한 뒤 고난을 뜻하는 '보라색' 한복을 입고 학생들을 대신해 투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훗날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모태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화 진영에서는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함운경씨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학생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4월 14일에 방영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출연한 당시 부장판사 이재훈씨는 "그 시대의 산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지금 같으면 그런 일로 기소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씩씩한 여운을 남겼다.

아무튼 필자는 '미문화원 점거투쟁'을 되짚어 보면서 새삼 '역사란, 모두 붙어 있는 연결고리'임을 실감한다. 5·18 당시 광주에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광주민중항쟁'은 반미투쟁에 불을 당겨 미문화원 점거로 이어졌는데, 당시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신정훈씨(고려대 신방과 4학년;현재 나주시장)와 운영상씨(서울대 사회학과 3학년) 역시 광주민중항쟁을 고등학생 때 체험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들 세대는 이후 87년 6월 항쟁과 이후 전개되는 90년대의 민주화투쟁에서 속칭 '넥타이부대'로 활약했으며, 작년 12월 전개된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故 신효순 심미선양을 추모하

는 촛불시위'에서는 아이들을 무동 태우거나 업고 나와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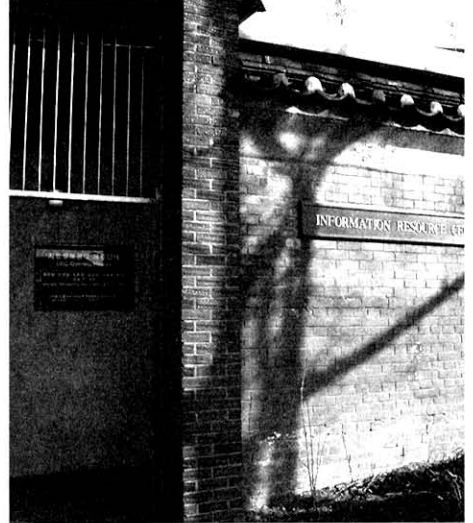
그리고 1996년 공개된 미국무성 보고서(일명 '체로키 파일')는 이들 미문화원 점거투쟁의 진실을 소소하나마 밝혀 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군대로 경찰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군부의 비상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한국 군부가 특전사 11, 13여단의 이동을 연합사에 통보함. 포항의 제1해병대도 부대 이동에 대한 승인 요청시 동의할 것임" 등의 기록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물론 체로키 파일은 전체가 공개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란 말인가!

####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IRC)

지금은 서울특별시 종합자료관이 된 당시의 미문화원에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어떠한 기록물도 없다. 간단한 표지라도 붙여 '미문화원 점거투쟁'의 역사를 알리면 어떻겠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함운경씨는 "우리아 그때를 회고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면 즐거운 일이겠죠"라고 말하며 웃는다.

그런데, 미문화원은 대체 어디로 옮겨진 걸까? 사실 필자는 현재의 미문화원을 찾느라 약간의 고생을 해야 했다. 막연히 용산 어디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있어도 딱히 '거기 가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 인터넷을 뒤지고 간신히 미대사관측과 전화통화를 한 뒤에야, '미문화원'이란 명칭은 없어졌고 '주한미국대사관 내 자료정보센터(IRC ; Information Resources Center)'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용산구 남영동 10번지에 있는 IRC는 길 건너에 'USO(미군위문협회)'가, 왼쪽으로는 '전쟁기념관'이, 그리고 뒤쪽으로도 '미대사관 공보과'를 끼고 있다. 언뜻 보기엔 가건물처럼 보이는 야트막한 2층 건물이고, 뒤쪽의 공보과도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다. 한국을 지킨다며 주둔한 미군들은 한국경찰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가건물처럼 보이는 앞쪽의 자그마한 건물이 자료정보센터고, 그 뒤쪽의 빨간색 벽돌 건물은 '미대사관 공보과'다.

에 의해 호위를 받고 있었는데, IRC 코앞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한국의 전경들은 정작 IRC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진촬영은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카메라 앞을 막아 선다. IRC를 이용하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다. 먼저 신분증과 가방을 맡긴 후에 검색대를 통과해야 출입을 할 수 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출입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근무자의 설명이다.

IRC내의 근무자에게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어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 미대사관 공보과를 찾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미문화원 점거농성과 관련해 취재를 나왔다는 필자의 말에 담당자는 취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만은 역력했다. 물론 자신의 말은 공식답변이 아니므로 익명을 사용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IRC는 1995년 이곳으로 이관하였고, 부산 대구 광주에 있던 미문화원은 97년 없어져 이제는 서울에만 있다고 한다. 인터넷 시대이므로 문화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미국에 관한 정보라면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인터넷등을 통해서도 얼마든 찾을 수 있다는 것.

주한미국대사관홈페이지 (<http://usembassy>

.state.gov/seoul)의 설명에 따르면 IRC는 “한국 기관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각종 미국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한미 경제·안보 관계와 국제 관계, 미국 사회, 가치, 정치, 국제 문제를 다루”며 참고서적 4,200권과 각종 정부간행물과 씽크탱크 연구보고서 등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곳 담당자에게 강변했듯, 필자가 IRC를 찾은 건 뭔가 ‘비아냥거리’를 잡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검색대를 통과하고 신분증을 찾아 되돌아 나오는 발길은 참 쓸쓸하다. 이런 느낌도 약소국 국민으로서의 비애중에 하나일까? 그런데, 그들은 왜 전 세계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하며 사사건건 타국의 주권을 농단하는 걸까? 강대국이 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걸까? 여러 생각이 오가는 중에도 문득 바람이 차다는 느낌에 옷깃을 잔뜩 여민다.

원시림

소설가, 1972년 충북 제천 출생. 19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와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발표작으로 「기둥」, 「용꿈」, 「믹스엔매치」 등이 있음. [wonsilim@korea.com](mailto:wonsilim@korea.com)